

“아드레날린 솟는 액션” 벌써 두근두근

내달 7일 동시개봉...외신들 호평 주인공 조앤슨 “마블 최고의 액션” 쇼트랜드 감독 “여성들 공감할 것” 팬데믹 속 새 구원투수 될지 관심



7월7일 전 세계 개봉하는 '블랙 위도우'의 주연인 데이비드 허버·레이첼 와이즈·주연 스킨릿 조앤슨·폴로렌스 퓨·O.T. 페그벤들.(왼쪽부터) 각 캐릭터가 영화의 스키임을 알려준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감염병 시대, 아직 활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극장가의 '구원투수'를 자임하는 슈퍼 히어로가 날아온다.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세상의 중요한 가치를 품어 안고, 이에 열광하는 고정 팬들의 환호와,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보릿고개' 위 극장가의 기대감이 쏠린다.

7월7일 오후 5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개봉하는 영화 '블랙 위도우'이다.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 시리즈로 친숙한 여성 슈퍼 히어로 캐릭터 블랙 위도우가 전면에서 나서는 이야기이다. 2019년 1300만 관객을 모은 '엔드게임'과 2018년 1100만명이 관람한 '인피니티 워',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등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듯, '블랙 위도우'는 여러 측면에서 시선을 모으며 올해 여름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최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에 외신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그 방증이다.

●“특히 여성이 공감할 슈퍼 히어로”

'블랙 위도우'는 블랙 위도우가 과거의 아픔을 뒤늦게 그에게 얽힌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이다. 지난해 단 한 편의 슈퍼 히어로물을 선보이지 못한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신작으로, 온전한 캐릭터로서 블랙 위도우의 면모를 내어 보인다.

주연 스킨릿 조앤슨은 24일 오전 한국 취재진을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 “(2010년 ‘아이언맨2’ 이후)10여년 땀의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개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약한 면을 통해 더욱 강인함을 찾아 나신다”며 블랙 위도우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특히 “남성에게 리액션만 하던 블랙 위도우가 리더십을 차츰

발휘해가며 독립된 캐릭터로 진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연출자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은 “블랙 위도우의 심적 여정”을 따라

가는 영화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이들이 나아가는 여정이다”면서 “특히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억압적인 가부장제를 유머의 힘으로 표현했다”는 감독은 “따뜻한 마음의 액션영화로 정의하고 싶다”면서 “웅장한 액션과 함께 끝내 따뜻하게 안아주는 영화”라고 자부했다.

이에 배리아이티와 인디와이어 등 해외 영화전문 매체들은 “아드레날린이 솟는 액션!”, “마블의 새로운 방향!” 등 호평을 내놓았다.

●“마블 최고의 액션” 자부...감염병 넘는다

'블랙 위도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어려움을 겪는 극장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낳는다. '블랙 위도우'가 국내에도 많은 고정 관객뿐 아니라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해온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한국 극장가에서는 앞서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 등 일부 외화와 23일 개봉한 '발신제한' 등 한국영화의 선전으로 다소나마 활기가 감도는 상황이다. '블랙 위도우'가 연중 극장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시장을 선도하고, 뒤따라 '모가디슈'와 '싱크홀' '인질' 등 7~8월 한국영화 개봉작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충분히 관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카릿 조앤슨은 이날 “어려운 시기를 겪은 우리(제작진)가 (개봉)순위를 재정비하면서 '블랙 위도우'가 시의적절한 영화가 됐다”면서 “함께하고 싶은 가족과 광팬 타지는 '마블 최고의' 액션을 보면서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블랙핑크' 이야기 담은 영화 8월 개봉



블랙핑크

그룹 블랙핑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극장 개봉한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블랙핑크:더 무비(BLACKPINK THE MOVIE)'가 8월 개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는 블랙핑크 데뷔 5주년을 맞아 제작됐다. 영화는 2018년 이들이 펼친 콘서트 실황 위주로 이야기를 펼친다. 또 블랙핑크의 히트곡 무대를 재편집해 새롭게 들려준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네 멤버의 이야기도 담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관련 포스터를 소개하며 “2021. 08. 04”라고 새겨 넣어 개봉일이 8월4일임을 시사했다.

역주행 아이콘 브레이브걸스, 데뷔 후 첫 팬미팅



브레이브걸스

차트 '역주행' 인기로 스타덤에 오른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2016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첫 팬미팅을 연다. 이들은 7월25일 '서머 퀸 파티'라는 타이틀로 온오프라인 무대를 펼치며 팬들을 만난다.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아레나에서 팬미팅 무대를 펼치며 이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브레이브걸스는 최근 내놓은 미니 5집 '서머 퀸(Summer Queen)'의 타이틀곡 '치맛바람'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멤버들이 팬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빛나는 순간 고두심 '애플플레스티벌' 여우주연상



고두심

영화 '빛나는 순간'의 고두심이 아시아애플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고두심은 17일 개막해 23일 막을 내린 이탈리아 로마 아시아애플페스티벌을 통해 첫 해외 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았다. 영화제 측은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오래된 상처를 넘어서는 사랑과 삶을 재발견한 여성의 사려 깊고 세심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고두심은 “빛나는 순간”의 제작사 명필름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영화를 좋게 봐줘 감사하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두심은 극중 젊은 다큐멘터리 PD와 애절한 감정을 나누는 제주 해녀 역을 연기했다. 영화는 30일 개봉한다.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 형평성 문제 제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문화홍·포장 수훈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3일부터 시행된 시행령과 관련해 24일 “류현진(아구), 손흥민(축구), 이창호(바둑), 조성진(클래식 음악)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조건을 갖춘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YTN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 연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경-로꼬, 내달 4일 컬래버 곡 선봬

연기자 이성경과 래퍼 로꼬가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7월 4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컬래버레이션한 곡을 선보인다. 덩고 뮤직의 '듀엣메이트'를 통해 펼치는 협업으로, 여성 연기자들과 래퍼가 호흡을 맞춰 음원을 공개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성경과 로꼬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드라마의 OST로 유명한 로꼬메리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입을 맞췄다. 이성경은 안정적인 보컬과 가창력을 인정받아왔다. 로꼬는 '잠이 들어', '주지마' 등으로 인기를 모은 래퍼이다. 이들은 25일부터 3주 동안 매주 금요일 '덩고 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원 제작기를 공개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과감하거나 발랄하거나... '퀴어 로맨스'의 변신은 무죄

최신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동성애 코드가 변주의 폭을 넓히고 있다. 과거 대체로 불안정하고 어둡게 그려진 이야기가 발랄한 청춘로맨스나 멜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신선함을 더한다.

27일 종영하는 tvN 토일드라마 '마인'이 대표적이다. 재발가 만능느리로 출연 중인 김서형은 성 소수자 설정으로 반전과 멜로의 서사를 이끌고 있다. 주연 캐릭터가 성 소수자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이례적이어서 더욱 시선을 모은다. 시청률도 9.4%(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다.

극중 김서형은 과거 연인이었던 김정화와 가슴 아픈 사랑을 드러내는가 하면, 승계 다름을 벌이는 시동생 이현욱으로부터 '동성애 전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위기를 고조시킨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케이



tvN '마인'

트 불란책과 영화 '캐롤'에서 멜로 연기를 펼쳐 2015년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루니 마라에 비견된다는 극찬도 나왔다. 김서형은 "(동성애 요소에 대한)고민도, 부담감도 없었다"며 "멜로가 왔으니 잘 해야 하는 마음 밖에는 없었다. 멜로 연기의 재미를 알았다"고 말했다.

23일 개봉한 영화 '메이드 인 루프탑'은 20대 남성 동성애자의 로맨스를 코믹하고 발랄하게 담아냈다. 친구 사이인 성 소수자 이홍내와 정위가 저마다 펼치는 연애 스토리를 그린다. 각자의 연인과 '쌈'을 타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는 이들의 간질거리는 감성이 여느 청춘로맨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출자 김조광수 감독은 24일 “최근 20대 성 소수자들이 10대 시절 이미 성 정체성 고민을 끝내고, 사랑과 일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에 초점을 둔다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며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동성애 요소의 웹 드라마를 잇따

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로 공개돼 주목 받은 '나의 별에게'에 이어 '새발맛고 학생회'가 29일 유튜브 채널 '콕TV'로 공개된다.

2월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를 방영하며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하는 등 여전히 성 소수자에 대한 일각의 편견의 시선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최근 영화와 드라마의 시도는 시청자와 관객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가깝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즐겁고 유쾌한 작품은 성 소수자를 억압 받는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성 소수자 소재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흐름에 따라 앞으로 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한한령' 어언 5년째...한국영화 리메이크작, 中 박스오피스 장악

중국판 '너의 결혼식' '씨니' 등 흥행

중국의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츠의 현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지 5년, 여전히 그 장벽은 높지만 한국영화는 리메이크작으로 질적 완성도를 과시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한국영화를 리메이크한 일부 작품이 중국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고 있어 완성작 수출 못지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한한령'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영화도 중국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올해 3월 펴낸 '2020 한류백서'에서 김경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전략팀장은 “현재 중국에서는 2016년 '암살' 이후 한국영화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영화 수출에 또 하나의 큰 축인 리

메이크 판권 판매가 2020년 99만7000달러(약 11억원)를 기록하며 100만여 달러를 조금 넘긴 2019년에 못지않은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영화 리메이크작의 성과는 뚜렷하다. 24일 중국 박스오피스 집계에 따르면 황정민·한혜진이 2014년 주연한 '남자가 사랑할 때'의 리메이크작이 현지 단오절 연휴(6월12일~14일)에 앞서 11일 개봉한 뒤 1위에 올랐다. 또 유효정·

심은경 등이 출연한 2011년 흥행작 '씨니'의 리메이크작도 같은 시기 선보여 이날 현재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박보영과 김영광이 호흡을 맞춘 '너의 결혼식'이 현지 리메이크돼 올해 봄 개봉하며 5월 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세븐데이즈' '꾼' '유열의 음악앨범' '소공녀' 등 “독특한 콘셉트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리메이크 준비 중이라고 김 팀장은 밝혔다. 이어 “리메이크는 한국영화가 중국 영화산업 내에 자리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